

‘25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7.14. 조선일보 가관, 「李정부 첫 세법개정, 중부세는 안 건드린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가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.”, “종합 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‘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,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문건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배 (ooh471@korea.kr)